

KISTEP 통계 브리프 2008-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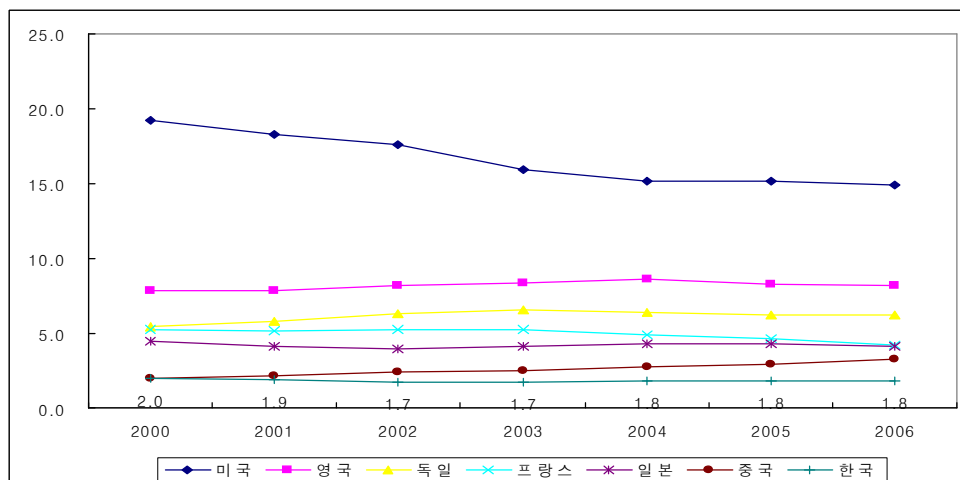
주요국 서비스 수출입 동향



□ 서비스 수출입¹⁾의 전세계 비중

- 우리나라는 전세계 서비스 수출의 약 1.8%(2006년)를 차지
 - 2000년대 이후 1.7%에서 2% 사이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연평균 9.2% 증가
 - * 수출액 : 305억불(2000년) → 519억불(2006년)
 -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10.6%의 빠른 속도로 증가
 - 미국의 비중은 급감한 반면 중국의 비중은 급증함
 - * 미국 비중 : 19.3%(2000년) → 14.9%(2006년)
 - 중국 비중 : 2.0%(2000년) → 3.3% (2006년)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입은 전세계의 약 2.6%(2006년)을 차지
 - 전세계 비중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수입액은 연평균 13.3% 증가
 - * 전세계 비중 : 2.2%(2000년) → 2.6%(2006년)
 - * 수입액 : 338억불(2000년) → 706억불(2006년)
 - 미국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 미국 비중 : 14.7%(2000년) → 12.7%(2006년)
 - 중국 비중 : 2.4%(2000년) → 3.7% (2006년)

<그림 1> 서비스 수출의 전세계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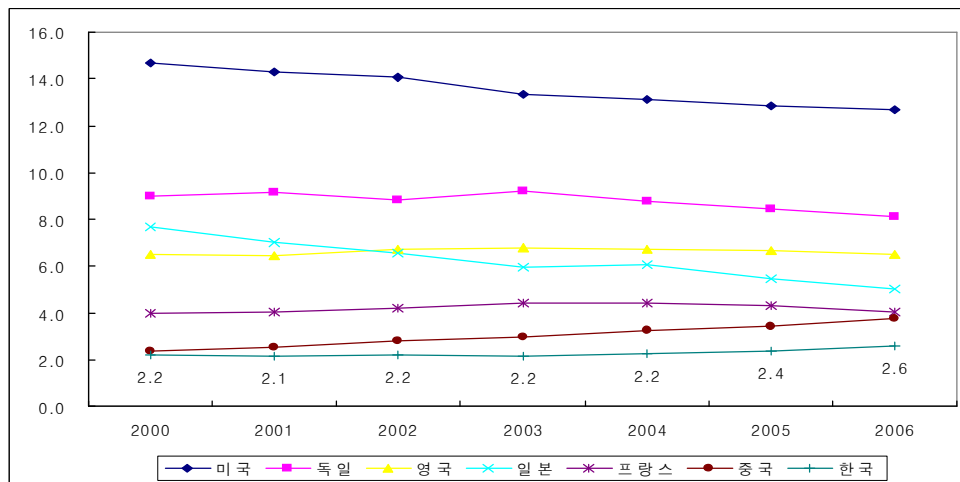


1) UNCTAD의 자료와 한국은행의 자료가 2006년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음. 국제 비교를 위해 본 통계브리프에 서는 UNCTAD 자료를 사용함

<표 1> 주요국의 서비스 수출액 (단위 : 백만 US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전세계	1,536,459	1,545,981	1,645,289	1,890,554	2,279,111	2,536,775	2,812,815	10.6%
미국	295,965	283,054	288,788	301,053	346,240	384,612	418,848	6.0%
영국	120,397	120,978	135,308	158,615	197,431	209,435	229,681	11.4%
독일	83,150	88,714	103,144	123,659	145,963	157,576	174,448	13.1%
프랑스	80,489	80,125	86,160	98,814	112,706	118,762	118,478	6.7%
일본	69,238	64,516	65,712	77,621	97,611	110,210	117,298	9.2%
중국	30,431	33,334	39,745	46,734	62,434	74,404	91,999	20.2%
한국	30,534	29,055	28,388	32,957	41,882	45,129	51,87	9.2%

<그림 2> 서비스 수입의 전세계 비중 (단위 : %)



<표 2> 주요국의 서비스 수입액 (단위 : 백만 US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전세계	1,526,512	1,549,973	1,640,250	1,872,117	2,225,430	2,457,112	2,696,436	9.9%
미국	223,739	221,764	231,049	250,328	292,214	315,632	342,817	7.4%
독일	137,254	141,916	145,158	172,837	195,272	207,218	219,383	8.1%
영국	99,747	100,193	110,023	127,250	149,916	164,584	175,894	9.9%
일본	116,864	108,249	107,940	111,528	135,514	134,256	135,556	2.5%
프랑스	60,691	62,372	68,960	82,898	98,384	105,582	107,995	10.1%
중국	36,031	39,267	46,528	55,306	72,133	83,796	100,833	18.7%
한국	33,381	32,927	36,585	40,381	49,928	58,788	70,637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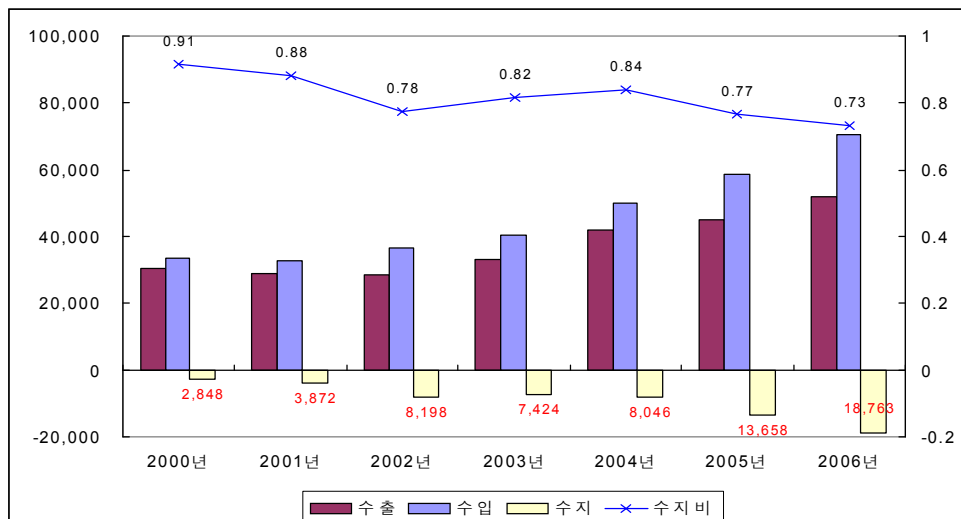
□ 서비스 무역의 수지

-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수지는 점차로 적자폭이 증가함
 - 서비스 무역 적자가 2000년 28억불에서 2006년 188억불로 급격히 증가함
 -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지비²⁾도 악화되고 있음
 - 미국은 2000년대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음

<표 3> 주요국의 서비스 무역 수지 (단위 : 백만 US 달러)

YEAR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미국	72,226	61,290	57,739	50,725	54,026	68,980	76,031
영국	-16,857	-20,938	-9,850	-14,222	2,159	2,217	10,298
독일	-16,597	-11,479	-6,879	-3,591	-3,953	-7,008	-1,446
프랑스	-36,375	-28,124	-21,781	-12,714	-22,808	-15,494	-17,078
일본	8,547	2,145	-3,248	-5,277	-772	4,628	9,303
중국	-5,600	-5,933	-6,784	-8,573	-9,699	-9,391	-8,834
한국	-2,848	-3,872	-8,198	-7,424	-8,046	-13,658	-18,763

<그림 3>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입 및 무역 수지
(2000-2006년, 단위 : 백만 US 달러)



2) 수출액/수입액

□ 전체 수출입의 서비스 수출입 비중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가운데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
 - 전세계적으로는 거의 비중의 변동이 없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증가 추세임
 -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과 비교하여 서비스 수출의 비중이 낮은 편으로 독일과 비슷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가운데 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후 증가 추세
 - 전세계적으로는 200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일본, 중국, 독일 등은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

<표 4> 주요국의 전체 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세계	19.4	20.2	20.5	20.2	20.1	19.7	19.0
중국	10.9	11.1	10.9	9.6	9.5	8.9	8.7
한국	14.8	16.1	14.8	14.3	14.0	13.5	13.5
미국	27.6	28.2	29.6	29.6	29.9	30.0	29.0
일본	13.1	14.4	14.2	14.7	15.3	16.3	16.0
프랑스	21.3	21.4	21.9	21.4	21.1	21.3	19.7
독일	13.3	13.6	14.5	14.2	13.9	13.9	13.4
영국	29.7	30.8	32.6	34.0	36.1	35.3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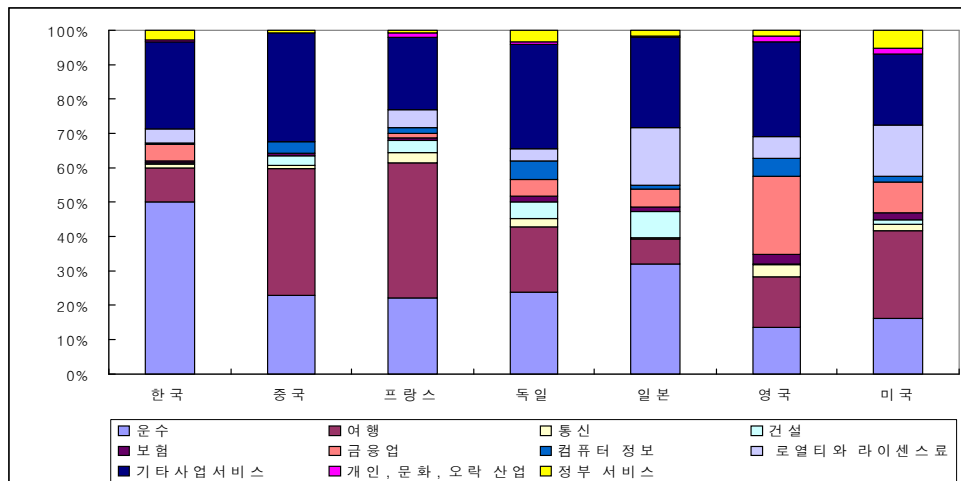
<표 5> 주요국의 전체 수입 중 서비스 수입 비중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세계	19.3	20.2	20.5	20.2	19.7	19.2	18.5
중국	14.4	14.5	14.2	12.3	11.9	11.8	11.8
한국	17.3	19.3	19.8	18.7	18.5	18.7	18.9
미국	15.4	16.2	16.5	16.5	16.5	15.8	15.6
일본	25.4	25.7	26.3	24.6	25.0	22.1	20.2
프랑스	16.8	17.7	18.7	18.8	18.8	18.4	17.2
독일	22.0	23.0	23.1	22.4	21.4	20.8	19.0
영국	23.0	23.2	23.8	24.7	24.5	24.4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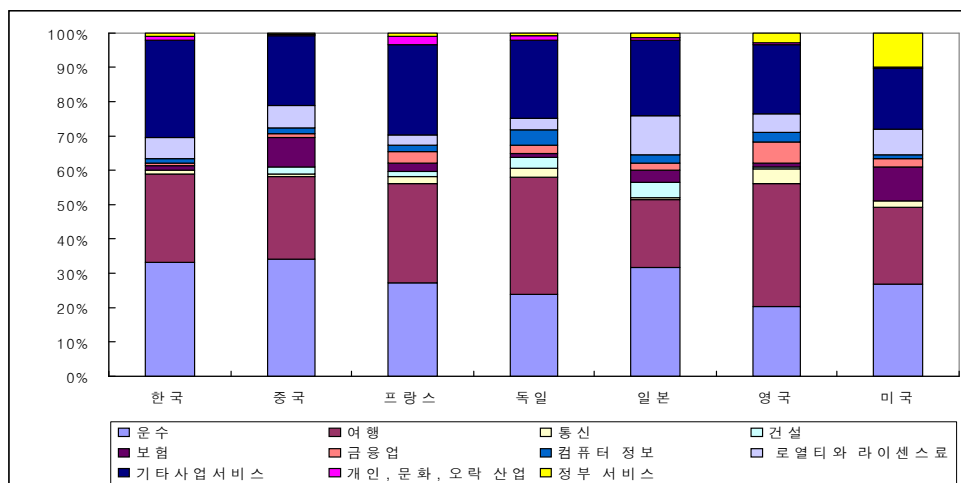
□ 주요국의 서비스 분야별 수출입

- 우리나라는 운수업의 수출비중(2006년 약50%)이 가장 높음
 - 반면 보험업, 컴퓨터정보, 문화·오락 분야의 수출 비중은 낮음
 - 중국, 프랑스는 여행업의 수출비중이 높고 일본, 미국은 로열티와 라이선스료 부문이, 영국은 금융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입 가운데 운수, 여행업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음
 - 주요국 역시 두 부문(운수, 여행업)의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정부 서비스의 수입 비중이 높음

<그림 4> 주요국의 서비스 분야별 수출 비중 (2006년)



<그림 5> 주요국의 서비스 분야별 수입 비중 (2006년)



□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별 무역 수지

-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여행부문이 차지함
 - 2000년에는 1/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06년 약 70%비중을 차지하면서 급증하고 있음
 - 또한 보험 분야와 컴퓨터 정보, 문화·오락 산업 부문의 무역 수지도 급증하고 있음
 - 반면 금융 분야의 무역 수지는 흑자규모가 계속 증가

<표 6> 서비스 분야별 무역 수지 (2000-2006년, 단위 : 백만 US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서비스산업	-2847.8	-3872.1	-8197.5	-7424.2	-8046.1	-13658.2	-18763.2
운수	2638.9	2137.5	1914.5	3566.8	4874.6	3732.9	2464.3
여행	-297.6	-1233	-4528.8	-4744.6	-6281.2	-9600.3	-12918.8
통신	-235.2	-344.3	-307.6	-351.7	-190.1	-330.1	-312
건설	13.3	66.6	15.7	23.5	95.6	104.5	123
보험	-77.8	-313.8	-533.7	-356.3	-322.5	-564	-543.2
금융업	513.6	449.8	625.4	597.4	956.6	1415.8	1941.2
컴퓨터 정보	-81.2	-87.5	-104.8	-104	-131.5	-125.8	-533.5
로열티와 라이선스료	-2533	-2129.4	-2166.9	-2258.8	-2584.8	-2652.4	-2476.7
기타사업서비스	-3128.3	-2848.7	-3601.8	-4362.1	-5037.4	-6115.2	-6834.3
개인, 문화, 오락 산업	-23.3	-67.9	-98.5	-185.1	-248.1	-209.2	-311.8
정부 서비스	362.8	498.6	589	750.7	822.7	685.6	638.6

□ 시사점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입이 수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비스 무역 수지가 악화됨
 - 특히 여행, 보험, 컴퓨터 정보, 문화·오락 부문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
- 이러한 서비스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한 외국인 관광 유치를 증진시키며
 - 급증하고 있는 해외 유학 등을 국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
 - 정보통신 분야 하드웨어 기술이 서비스 기술로 전환되도록 해야 함
-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서비스부문의 기술 능력과 경영능력의 제고해야 함

* 자료원 : UNCTAD Statistical Database on-line : Handbook of Statistics

* 자료관련 문의 : 정보분석팀 (02-589-2949, 2892)